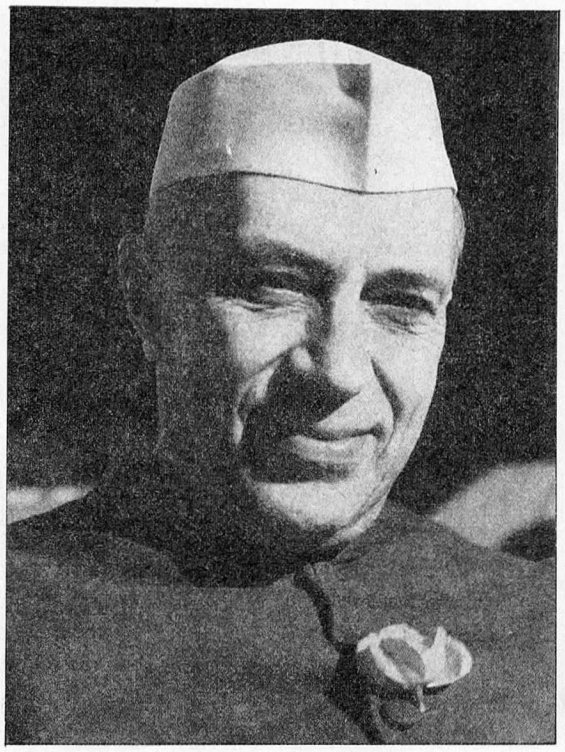
인도 현대사의 큰별 네루 傳記 출간

정치적 功過 객관적으로 조명…'재평가'계기 될듯



인도 민족운동의 지도자이자 공화국 초대 수상 을 역임했던 네루.

간디와 함께 인도 현대사에 있어 두 거목으로 꼽히는 네루(1889~1964)의 전기가,그의 탄생 백주년과 때를 같이하여 최근 바이킹 출판사를 통해 출간됐다.

인도의 저명한 언론인인 M. J. 악바르가 이번에 발표한 「네루」(*Neru : The Making of India*)는, 네루의 私信은 물론 최근 공개된 영국정부의 인도관련 기밀문서들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저자는 학자적인 날카로운 분석력과 작은 사실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저널리스트 특유의 끈질긴 본능으로 네루의 진면목을 추적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 책이 인도 독립운동과 공화국 성립초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네루의 위치를 재평가하는 좋은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인도 카시미르의 부유한 변호사 가정에서 태어난 네루는, 15세에 영국으로 건너가 해로 스쿨과 캠브리지大에서 수학한 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서구의 자유이념에 깊은 영향을 받았던 그는, 인도 역시 서구인들과 동등한 수준의 자유를 향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귀국후 간디와의 만남을 통해 결정적으로 민족주의사상을 다지게 된다.

1921년 反英투쟁으로 체포된 이래 1945년까지 네루는 십여년간 옥고를 치렀으며, 영국정부의 탄압은 그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구성원 모두에게 가해졌다. 뇌종양으로 비교적 젊은 나이에 사망한 아내 카밀라를 제외하고, 네루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딸 인디라와 사위 페로즈 간디가 수차례 감옥생활을 해야했으며, 가까운 친척들 역시 영국의 탄압을 피할 수는 없었다. 이러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네루家의 투쟁정신은 꺾이지 않아, 악바르는 "용기야말로 네루家의 가장 뛰어난 특질이다"라고 전기에서 지적하고 있다.

전기 「네루」가 독자들의 특별한 관심을 끄는 이유는 네루의 독립투쟁과정과 개인적인 면모를 소상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도 있지만, 독립직후 17년 동안 수상직을 맡았던 그의 정치적 공과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조명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인도의 통합이 어째서 이슬람이라는 이름으로 파괴되고 말았는지 캐내고 싶었다"고 저자는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던 계기를 털어놓았는데, 오늘날 인도가 겪고 있는 분리주의와 종교분쟁의 씨앗은 공화국 성립 전후의 정치 상황 속에 이미 배태되어 있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그는 특히 인도분리의 가장 큰 책임을 당시 영국정부가 추구하고 있었던 '분리와 통치(divide and rule)' 정책에 돌렸으며, 국가적으로 중대한 시기에 내부적인 약점을 노정했던 회교 지도자간의 갈등, 그리고 네루의 정치적 과오에도 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인도 현대사에 있어 네루야말로 진정한 영웅이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저자는 결론을 맺었다.

학계의 논란 부른 「일본파워의 수수께끼」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인가?

경제대국이기는 하지만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나선 책이, 최근 서구의 언론가와 학계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화제의 책 「일본 파워의 수수께끼」(*The Enigma of Japanese Power*) 를 쓴 작가 카렐 반 볼페렌은 네덜란드의 유력 경제지 「한델스 브라트」의 일본특파원으로 20년 넘게 이 관계 기사만을 보도해온 일본통.

"80년대 국제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 경제대국에는 정치적인 방향타가 없으며, 전략을 갖고 있지 않은 모사가들의 나라다. 일본은 스스로를 지배하는 능력조차 없기 때문에 국제무대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없는 마비된 수퍼파워다."

저자는 이와같은 대담한 주장 아래, 일본 정치사회의 가장 큰 특징으로 이니셔티브의 부재를 지적한다. 행정부의 수반인 수상이 있기는 하지만 그가 행사하는 권력은 다른 어느 나라의 국가지도자들의 것보다 약하며, 누가 수상 자리에 앉든간에 사실 큰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일본 의회민주주의 한계성에 대해선 이미 많은 학자들이 지적해왔는데, 반 볼페렌은 그것을 일당체제로 규정하는 한편 의회지도자들은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는 파워 브로커'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정당 역시 명확한 정책관을 갖고 있다고 보기에도 힘들며, 특히 일본 정치를 이끌고 있는 自民黨은 자유롭지도, 민주적이지도 않으며, 서구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黨도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일본을 움직이는 가장 큰 세력이라면, 대부분 동경대학 출신인 관료집단을 꼽을 수 있다. '정부는 부모이며 국민은 자녀'라는 의식이 아직도 사회 전반에 강하기 때문에, 관료들은 국민 개개인의 사고까지도 좌우하는 힘을 갖고 있다고 저자는 분석한다. 그러나 관료들이 완벽한 이니셔티브를 쥔 것은 아니며, 재벌기업의 도움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한계성를 갖고 있다.

일본의 이와같은 상황은 일견 세력균형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긍정적인 의미에서 한 국가와 사회를 주도해나가는 중심개념과 세력의 부재로 파악돼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일본 정치와 사회에 있어서의 비민주적인 성격과 주도력의 부재상태를 들어, 국제정치무대에서 일본이 경제분야에서처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반 볼페렌의 결론은 확실히 서구 독자들에겐 흥미와 안도감을 느끼게 할 만하다.

따라서 학계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이 책에 대한 반박의 목소리도 높아, 일본정치를 지나치게 파워측면에서만 분석함으로써 최근 문화적 · 개인적 차원에서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가치관의 변화를 경시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책을 읽고, 우리가 일본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며 좋아할 것이다. 일본이 민주주의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하기 때문이다." 존스 홉킨스 대학 일본정치교수인 N. B. 데이어의 우려다.

英시인 필립 라킨 遺稿시집 나와

인간의 상실된 욕망과 고독감을 씁쓸하면서도 위트있게 노래했던 영국의 시인 필립 라킨(1922~1985)의 「詩선집」이 발간돼, 그의 독특한 시세계를 사랑했던 독자들을 반갑게 하고 있다.

지난 85년 후두암으로 사망한 필립 라킨은, 대중 앞에 나서기를 유별나게 꺼렸던 그의 성품으로 인해 일반 독자들과는 그리 가깝지 않았지만 영국 시단에서 가장 존경받는 작가 중 한사람이었다 (84년 시인으로서는 최고영예인 계관시인에 임명됐으나 그는 이를 거부했다).

라킨은 작품생활 40여년 동안 단 4권의 시집만을 출간한 과작가로도 유명한데, 자신의 미공개 원고들은 모두 파기해버리라는 유언을 남기기도 했다. 그러나 재산관리인단에게 약간의 재량권을 부여한 유언장 조항 덕분에, 그중 한사람이었던 A. 드웨이트가 원고를 구해냄으로써 지금까지 발표되지 않았던 80여편의 작품들이 이번 시선집에 수록되게 됐다(그러나 그의 일기장은 파기됐다).

코벤트리의 평범한 공무원 가정에서 태어난 라킨은 한때 재즈 드럼주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으나, 옥스퍼드대학에서 문학수업을 받고 시인의 길을 걷게 된다. 대학졸업 후 사망할 때까지 도서관을 자신의 일터로 삼았던 그는, 결혼도 하지 않은채 예술가의 다채로운 삶과는 거리가 먼 수도승같은 생활을 영위했다.

삶의 폭과 마찬가지로 그의 시세계 역시 비교적 협소하다는 평을

받기도 했지만, 현대인의 삶을 다양한 톤과 형식을 빌어 노래한 그의 작품들은 동시대의 많은 작가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다.

인간의 희망과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차가운 단절이야말로 그가 평생을 탐구해왔던 주제였는데, "내게 있어 황폐와 고독감은 워즈워드

현대인의 상실된 욕망과 고독감을 노래했던 영국시인 필립 라킨

에게 있어 수선화가 지녔던 의미와 같다"고 라킨은 자신의 작품세계를 요약해 말한 바 있다.

이번에 출간된 시선집에는 그의 학생시절 작품에서부터 시집「*The North Ship*」(1945),「*The Less Deceived*」(1955),「*The Whitsun Weddings*」(1964),「*High Window*」(1974)에 수록됐던 대표작들은 물론 미완성 연작시「춤」에 이르기까지 모두 242편이 실려 있다. 따라서 초기의 예이츠, 오든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그만의 목소리를 형성해나가는 과정을 한눈에 살펴 볼 수 있다고. 도서관 책더미 사이에 웅크리고 앉아 삶의 본질을 꿰뚫어보았던 그의 작품의 남다른 호소력과 매력을 이 시선집을 통해 재확인해볼 수 있다는 것이 평론가들의 한결같은 의견이다.

천재 영화감독 오손 웰즈 전기 출간

신문왕 허스트의 생애를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영화「시민 케인」(1941년) 한편으로 세계영화사에서 부동의 위치를 차지했던 천재 영화인 오손 웰즈의 전기「시민 웰즈」*(Citizen Wells)*가 미국의 영화학자 프랭크 브래디에 의해서 최근 발간됐다.

웰즈의 전기로는, 1983년 웰즈 자신이 발표한 자서전과 85년에 나온 찰스 히검의「오손 웰즈 : 천재의 흥망」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 브래디의「시민 웰즈」는 웰즈라는 인물의 내면을 전작들보다도 더욱 깊숙히 파고드는 한편,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그의 예술세계와 활동의 이모저모를 상세하게 밝혀 영화애호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26살의 젊은 나이에 웰즈가 감독하고 연기했던「시민 케인」은 새로운 촬영기법, 사운드의 혁신적인 이용, 그리고 무엇보다도 웰즈의 카리스마적인 연기로 영화사에 새로운 획을 그었던 작품. 브래디는「시민 웰즈」에서, 웰즈야말로 필름 누아르(범죄와 타락, 심리적 일탈과 정신이상을 주로 다루는 영화 장르) 양식의 창시자였다고 칭송하면서 그의 영화작품들은 후대의 수많은 영화감독들에게 강한 영향을 주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특히 웰즈는 소년시절부터 거인의 식욕과도 같은 엄청난 지식욕의 소유자였다고 하는데, 이미 6살 때 이 세상 모든 것이 한낱 사기라는 사실을 발견했을 정도로 조숙했다고. 권위와 관습에 대항했던 프로메테우스적인 인물 오손 웰즈는「시민 케인」이후「위대한 앰버슨가」「상하이에서 온 여인」「맥베드」등을 만들었지만 대중에게 어필하지는 못했었다. 결국 그는 그가 그토록 존경했던 영화감독 D.W.그리피스처럼 헐리우드로부터 소외되어 TV 드라마와 광고에나 간간이 얼굴을 내미는 몰락한 영웅이 되고 말았다. 재정적인 어려움도 항상 그를 따라다녔던 걱정거리 중 하나였는데, 저자 브래디는 1984년 사망하기 직전까지 영화제작 자금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웰즈가 까마득한 후배인 스티븐 스필버그감독으로부터 정중하게 도움을 거절당했던 일화를 공개하기도. 그러나 저자는「시민 웰즈」를 통해, 끝없는 영고성쇠를 겪었던 방랑자적 천재예술가 오손 웰즈에게 무한한 사랑과 동정 그리고 존경심을 표하고 있다.

현역 정보장교 공상소설 내 화제

현역 미군정보장교가 제3차 세계대전 발발을 그린 공상소설「붉은 군대」*(Red Army)*를 내놓고 평단으로부터 최고 수준이라는 극찬을 받아 화제다. 작가는 랠프 피터스.

중앙유럽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제3차 세계대전을 소련측의 시각에서 추적했다는 점이 이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인데, 저자가 워낙 전략·전술과 군인들의 심리에 정통한데다가 뛰어난 필력을 발휘하고 있어서 독자들은 저도 모르게 깊이 빨려들어가게 된다고. 특히 사령관에서부터 보병에 이르기까지 군인들이 전장에서 경험하는 초조감과 절망에 대한 묘사는, 다른 어떤 작품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탁월한 리얼리티를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소련의 붉은 군대가 우유부단한 서방세계를 제압해나가는 과정을 그린 이 작품의 정치적 메시지는 간결명료하다. 즉 서방세계의 군사력은 단결력의 결핍으로 마비되어 있다는 것인데, 특히 나토(NATO)는 정치화와 관료화라는 내부적인 약점으로 인해 공산진영이 공격해올 경우 이를 막아낼 준비가 현재 전혀 돼있지 않다고 저자는 비판한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점은 나토의 가장 큰 약점이 정치적인 것이지 군사적인 차원의 것은 아니라고 저자 피터스는 보고 있다.

"인간은 항상 싸움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충돌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충돌에 대비하는 것이다." 실로 직업군인다운 시각이 아닐 수 없다.

—오애리 기자

「뉴욕타임스 북 리뷰」 베스트셀러목록 1989년 5월 28일 현재

순위	소설	비소설	페이퍼백 소설	페이퍼백 비소설
1	**WHILE MY PRETTY ONE SLEEPS** 메리 히긴스 클라크(사이먼 & 셔스터) 가십작가의 살인사건이 뉴욕 하이패션계에 파란을 몰고 온다.	**A WOMAN NAMED JACKIE** C. 데이비드 헤이먼(라일 스튜어트) 재클린 케네디 오나시스 전기	**TO BE THE BEST** 바바라 테일러 브래드 포드(밴텀) 재정적 스트레스를 헤쳐나가는 백화점재벌 상속녀의 이야기	**BITTER BLOOD** 제리 블렛소(오닉스) 부유한 세 가문에서 발생한 9명의 살해사건의 원인을 파헤친 작품
2	**STAR** 다니엘 스틸(델라코르트) 워싱턴 정가와 헐리우드 연예계에서 각각 성공한 남녀의 운명적 사랑	**ALL I REALLY NEED TO KNOW I LEARNED IN KINDERGARTEN** 로버트 펄검(빌라드) 수필집	**LIGHTNING** 딘 R. 쿤츠(버클리) 신비에 싸인 한 낯선 사람이 곤경에 빠진 여성을 구해낸다.	**THE ROADLESS TRAVELED** M.S.펙(터치스톤/S & S) 정신분석 의사의 심리학 및 영감에 관한 글
3	**THE NEGOTIATOR** 프레데릭 포사이드(밴텀) 핵무기 폐지조약 체결을 방해하려는 테러리스트들의 시도를 한 미국인이 막는다.	**LOVE AND MARRIAGE** 빌 코스비(더블데이) 로맨틱한 관계의 기쁨과 좌절에 대한 고찰	**THE SHELL SEEKERS** 로자몬드 필처(델) 영국의 한 가문의 삼대에 걸쳐 전해져 내려오는 그림	**LOVE, MEDICINE & MIRACLES** 버니 시겔(페레니얼/하퍼 & 로) 환자의 정신과 감정의 중요성
4	**THE TEMPLE OF MY FAMILIAR** 앨리스 워커(하코트 브레이스 조바노비치) 5천여년에 걸친 인류의 다양한 관계들을 파헤친 장편소설	**"FUNNY, YOU DON'T LOOK LIKE A GRAND-MOTHER,"** 로이스 와이즈(크라운) 광고업에종사하는 저자가8살난손자를둔할머니로서의자신의역할을되돌아본다.	**THE DRAWING OF THE THREE** 스티븐 킹(플럼 NAL)「건슬링어」최신작	**RIDING THE IRON ROOSTER** 폴 더루(아이비) 중국대륙 횡단기차여행기록
5	**THE SATANIC VERSES** 샐먼 러쉬디(바이킹) 런던에 거주하는 봄베이 출신의 두 남자가 그들 자신 속에 내재한 선과 악을 발견하게 된다.	**A BRIEF HISTORY OF TIME** 스티븐 W. 호킹(밴텀) 영국의 물리학자 호킹의 우주론	**THE SILENCE OF THE LAMBS** 토마스 해리스(세인트 마틴스) FBI요원과 한 여성이 연쇄살인사건을 뒤쫓는다.	**THE POWER OF MYTH** 조세프 캠벨, 빌 모이어스(더블데이) 인간과 삶과 신화의 관계
6	**THE JOY LUCK CLUB** 에이미 탄(퍼트남) 이민1세대인 어머니와 2세대인 미국화된 딸 사이의 긴장과 문화적 유대	**ABOUT FACE** 데이비드 H. 핵워드, 쥴리 셔먼(사이먼 & 셔스터) 직업군인의 경험담	**THE TAMING** 주드 더버로(포켓) 중세 영국을 배경으로 한 로맨스와 기사들의 모험	**CHAOS** 제임스 글레이크(펭귄) 혼돈 속에서 질서와 패턴을 찾을수 있도록 해주는 '뉴 사이언스'
7	**STRANGER IN SAVANNAH** 유지니어 프라이스(더블데이) 남북전쟁기를 배경으로 한 세 가문의 영고성쇠	**SUMMER OF '49** 데이비드 햄버스텀(모로) 49년 아메리칸 리그에 진출한 보스턴 레드 삭스팀과 뉴욕 양키스팀	**2061 : Obyssey Three** 아더 C. 클라크(델 레이/밸런타인) '2010년' 후속편	**POISONED BLOOD** 필립 E. 긴스버그(워너) 거짓, 사기, 살인으로 점철되었던 소읍 출신 여성의 7년 동안의 생활
8	**A PRAYER FOR OWEN MEANY** 존 어빙(모로) 사고로 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한 소년이 우리 시대 최고의 예언자로 둔갑한다.	**THE ANDY WARHOL DIARIES** 패트 해켓트(워너) 1976년부터 87년까지 예술계를 이끌었던 앤드 워홀의 일기집	**PET SEMATARY** 스티븐 킹(시네트/NAL) 새로 이사온 한 가족이 동네 공동묘지에 숨겨져 있는 끔찍한 사실을 발견한다.	**THE PRIZE PULITZER** 록산느 풀리처, 캐슬린 맥사(밸런타인) 신문왕 풀리처의 전 부인이 밝히는 팜비치 사교계의 이면
9	**PLAYMATES** 로버트 B. 파커(퍼트남) 대학 야구계의 스캔들을 파헤치는 사립 탐정 스펜서	**THE NIGHT THE BEAR ATE GOOMBAW** 패트릭 F. 맥마너스(홀트) 26편의 반 자서전적 이야기들	**FEATHER ON THE MOON** 필리스 A 휘트니(포셋) 유괴된 딸을 찾아다니는 젊은 어머니	**CONTRACT ON AMERICA** 데이비드 샤임(제브라)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사건에 마피아가 관련되어 있음을 밝힌 작품
10	**WE ARE STILL MARRIED** 개리슨 카일러(바이킹) 레이건 시대의 미네소타 주민생활을 주제로한 유머러스한 시, 단편, 평론 모음	**CITIZENS** 사이몬 샤머(크놉프) 프랑스 혁명사	**CRIMSON JOY** 로버트 B.파커(델) 보스턴에서 일어난 여성연쇄살인사건을 파헤치는 사립탐정 스펜서	**THE HERO WITH A THOUSAND FACES** 조세프 캠벨(프린스턴 대학) 신화를 통해 본 인류